

“북한산 도로건설·천성산 고속철 통과 개발보다 보존에 치중해야”

이외에도 많은 비지정 문화재급 불교유산의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모든 문화재의 실태 파악이 전제가 된다. 이를 전제로 석조 문화재와 목조 문화재, 전적류 등 각 분야별 보존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불교계 내부에서 다양한 분들의 대화와 결전의 장에 참여하여 신뢰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회창·불교문화를 떠어놓고는 우리의 민족문화를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교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북한산 고속도로건설,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등에 대해 “개발보다는 보존에 무게를 두고 쉽게 훼손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달리아라마 방향을 허용할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달리아라마 방향 할 수 있도록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답은 본지가 국민의 절반 이상(50.7%)이 종교인인 다종교사회이며, 그중 45%가 불자인 한국사회에서 제16대 대통령후보인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종교정책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두 당의 대통령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종교분쟁에 우려를 표한다”며 “다종교사회에서는 화합이 가장 중요하며, 종교는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고귀한 인간기치의 발현”이라는 종교관을 피력했다. 또 문화재 보존 방안에 대해 “문화재 실태파악과 보존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불교계 내부의 인사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를 만들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다. 종교교류가 향후 민족통일에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종교인들의 남북 교류는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 서로가 하나의 민족 구성원임을 재확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 종교인들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남북통일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각종 지원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회창:한마디로 종교계의 남북교류보다

전통 선을 복원하고 선사상을 널리 펼쳐 현대 불교를 실질적으로 개창하신 경허 대선사를 존경합니다. 스님들처럼 항상 ‘초발심자경문’을 곁에 두고 평생 동안 마음가짐이 흔들릴 때마다 새롭게 읽어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없는 이들을 돕고 자 인권변호사의 길로 뛰어 들 때의 초발심,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발심을 잊지 않으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회창:명성이 높으신 고승들 모두 나름대로 정신세계를 다듬으신 훌륭한 분들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평가할 것들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하기도 못하고 평가하는 일 자체가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원효대사님의 화쟁사상이 참으로 절실한 세상이고 특히 우리 사회가 처한 갈등구도를 타파하는 길은 원효대사의 가르침처럼 융서하고 화해하는 일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후보님의 종교관을 듣고 싶습니다. 노무현 후보:불교와 관련한 특별한 경험과 기억은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 불상을 모셔놓고 아침마다 독송을 하셨는데 그 소리에 잠이 깨곤 했던 기억이 있지요. 20대 젊은 시절에 철학적 관심으로 받아심심, 불교개론 등을 읽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는 민주당 불교모임인 연동회 부회장을 맡았던 적도 있습니다. 종교란 아끼고 기어워하는 마음입니다. 낯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먼저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지장보살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희생하여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고귀한 인간정신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후보:저는 아시아사피 가톨릭을 종교로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화해와 일치, 나눔과 섬김을 기본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화쟁사상 또는 자비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교계의 가톨릭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까닭도 교리의 동질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의 제일가는 덕목과 목적은 화해와 나눔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는 국가의 종교정책에 대한 개념도 중요할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되신다면 다종교인 우리사회를 위해 어떤 종교정책으로 임하실 방침인지요.

노무현:인젠가 달리아라마가 티베트에서 살던 시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교로 개종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망명한 뒤 다른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다른 종교들도 큰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귀의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화합과 병화를 추구하는 종교의 정신에 이르르면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교분쟁으로 인한 전쟁은 너와 내가 다들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배타주의입니다. 나는 정치를 하는 내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화두 하나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집권하면 종교계의 협조를 받아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내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회창:요즘 해외에서 심화되고 있는 종교분쟁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민족종교인 불교와 저의 개인적 신앙 가톨릭 모두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종교라는 점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종교계에 대한 역할을 물어오셨는데 대통령이라 해서 종교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거꾸로 종교계가 대통령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권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등에 대한 종교계의 비판이 보다 강화되어야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국문화재의 70~80%가 불교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노무현: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족문화의 창달을 주도해왔습니다. 유형문화재뿐 아니라 정신문화나 놀이문화 같은 무형문화 속에도 불교의 영향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특히 불교문화재 보존정책은 보존에만 역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의 발굴과 아울러 그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당은 불교문화재의 보호 및 발굴과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기구에는 불교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불교계 인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주 정책으로 현재 사찰이 수행환경 훼손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조되는데 후보님의 환경보존대책 기조는.

노무현:개발과 보존은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개발에 따라 사찰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이 파손되면서 불교계가 더욱 피해의식을 클 수도 있다는데도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발보다는 보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발보다 보존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이 우리 시대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줄 자연유산이란 점 때문입니다.

이회창:북한산 관동도로는 수도권의 교통혼잡을 다소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문제가 그만큼 시급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무리를 해서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인 불교계를 비롯하여 환경단체 또는 문화재보호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을 앞세워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자존심의 상징인 독립문을 훼손했던 과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민족교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교류가 우선 활성화되어야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 정치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이라면 어느 정부든 아무런 부담 없이 대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해 불교계가 달리아라마를 초청하려다 정부의 비지발급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비리고 있는 달리아라마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달리아라마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적인 정신지도자입니다. 초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도 고려하면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회창:어떠한 이유에서든 세계적 종교지도자에게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은 응당치 못한 일입니다. 저는 달리아라마의 한국방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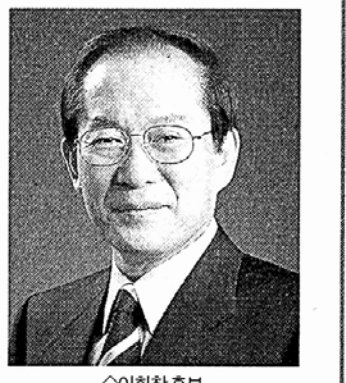
■ 한국불교는 다른나라에 없는 독특한 참선수행 전통이 있고, 외국인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불교를 보다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노무현: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출가한 현각스님이 ‘한국 최고의 수출품은 자동차도, 반도체도 아닌 불교 문화유산’이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충분히 세계 속에서 세계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유산이 홍보 부족과 이를 위한 정부 및 불교, 문화인들의 노력 부족이 현실의 벽을 높게 한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 우리의 문화와 한국불교를 제대로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회창:불교문화는 우리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민족문화이자 그 장엄함과 당당한 기풍으로 인하여 경쟁력도 높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불교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문화의 가치정립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는 오늘과 같은 다종교사회에서 정부의 지원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계 스스로도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불교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후보



◇이회창 후보

노무현·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종교정책은...

석조·목조·전적류 구분 체계적으로	문화재보호	보존·발굴·평가 지원기구 설립계획
종교인들 자주 만나면 통일에 이바지	남북종교교류	민간교류 활성화로 통일 공감대 형성
우수성 알릴 방안 검토 정책에 반영	불교 세계화	우선 가치정립, 불교계 노력 병행돼야

취운선원 입방공고

영축 총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는 임오년 하안거 결제에 정진하실 참선수행에 관심있는 재가불자님의 방부를 받습니다

☐ 하안거 기간: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TEL: 055)383-6479

취운선원의 원룸형(13평형) APT에 입주하실 평생가족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 총림 통도사 취운선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이공전 설산 스님의 그림 에세이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알몸으로 와서 일구고 살다 수의 한 벌 얻어 입고 어느 곳으로 가느냐?

신국판 / 208쪽 / 값 9,000원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圖書三養 電話 02)762-5166~7 · 팩스 02)762-3973